

보도시점

2026. 9. 1.(화)

국무회의 의결시

배포 2026. 8. 31.(월) 08:00

국세감면액(감면율) '26년 87.0조원(16.3%), '27년 104.9조원(14.5%) 전망

- 「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 국회 제출

정부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「2027년도 예산안」의 첨부서류로 「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를 9.3(목)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<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· 국세감면율 > 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5년 실적	2026년 전망	2027년 전망
○ 국세감면액 (A)	761,084	870,132	1,049,307
○ 국세수입총액* (B)	4,021,024	4,447,507	6,153,088
○ 국세감면율 [A/(A+B)]	15.9	16.3	14.5
○ 국세감면율 법정한도**	15.5	16.4	16.6

*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('25년은 결산, '26년, '27년은 세입예산 기준)

**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 0.5%p

'25년 국세감면액은 76.1조원이며,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 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'24년 대비 5.6조원 증가하였다. 국세감면율은 15.9%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(15.5%)를 0.4%p 상회하였다.

'26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 등으로 '25년 대비 10.9조원 증가한 87.0조원으로 전망된다. 국세감면율은 16.3%로 법정한도(16.4%)를 0.1%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'27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&D·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'26년 대비 17.9조원 증가한 104.9조원으로 전망된다. 국세감면율은 14.5%로 법정한도(16.6%)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※ 「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

(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)에서 “2027년도 예산안”으로 확인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15-41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경 (dkim7258@korea.kr)

참 고

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

<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(억원, %) >

구 분		2025년		2026년		2027년	
		실적	비중	전망	비중	전망	비중
개 인	중·저소득자*	336,449	69.0	346,740	67.6	368,582	66.9
	고소득자	151,136	31.0	166,014	32.4	182,372	33.1
	계 (총계 대비)	487,585	100.0 (64.1)	512,754	100.0 (58.9)	550,954	100.0 (52.5)
기 업	중소기업	188,301	70.4	203,421	58.1	207,745	42.2
	중견기업	11,010	4.1	11,213	3.2	12,228	2.5
	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)	42,685	16.0	107,762	30.8	245,871	49.9
	기타기업	25,616	9.6	28,003	8.0	26,397	5.4
	계 (총계 대비)	267,612	100.0 (35.2)	350,399	100.0 (40.3)	492,241	100.0 (46.9)
구분곤란		5,887		6,979		6,112	
총 계		761,084		870,132		1,049,307	

* 근로소득 8,700만원(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%) 이하 근로자, 농어민, 고령자, 장애인 등

1. 개인: 감면액은 중·저소득자,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, 감면비중은 고소득자 증가 전망

-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주로 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 등 관련 공제*,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증가**하는 것에 기인

*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, 국민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

** 1」 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 관련 공제(고소득자, 조원): ('25) 5.1 ('26^e) 5.7 ('27^e) 6.2

2」 연금보험료 공제(고소득자, 조원): ('25) 1.7 ('26^e) 2.0 ('27^e) 2.1

2. 기업: 감면액은 중소·중견기업, 대기업(상출) 모두 지속 증가, 감면비중은 대기업 증가 전망

- 대기업 비중 증가는 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및 투자·R&D 증가 등에 따라 투자·R&D 공제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

* 투자·R&D세액공제(대기업(상출), 조원): ('25) 3.5 → ('26^e) 10.0 → ('27^e) 23.7